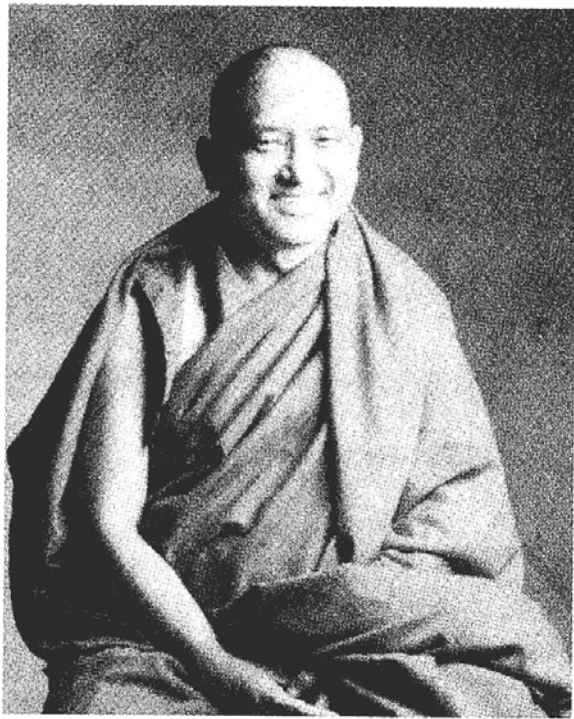


어름특집 해외스님 특별 설법

“지금 여기서 깨어남의 경험을”



조파 린포체 네팔 코판사원 원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불교와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올바른 서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상은 올바른 서원을 통해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에도 기교적인 가르침만을 배울 뿐 불교와 일상의 상호관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한 유명한 불교선사가 “수행이란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자신을 올바른 방향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얼마나 많은 나날이 혹은 사건이 지나갔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의 발달을 위한 수행에는 기복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의 기복을 가집니다.

달에 따라 혹은 해에 따라 기복이 있기도 하여, 수행이 깊어지거나 혹은 몇몇 동안 고통과 절망의 세계에서 어두운 만민을 보며 크나큰 우울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달이나 해에 따른 기복에서도 오래 견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 나와 너 차별 사라지고 집착은 고요로 변하고 진리를 보게 됩니다”

디는 평정심으로 무상의 물결이 지나가게 하여 수행의 과정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물들이 그 자체대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선입견 없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마음의 이런 성질입니다.

달이나 해에 따른 기복에서도 오래 견

간만이 존재합니다. 시간과 수행이란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 방식입니다. 절대적 이해로 우리는 순간에 완전히 다가설 수 있고 수행은 완성됩니다. 진보는 없고 단지 지금 여기의 존재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면 ‘현재’를 경멸할 수 있는 자질이 생깁니다. 준비심은 이 자리로부터 유래합니다. 고통의 끝인 지혜의 계발은 자신을

- 약 력
- 1946년 네팔 솔루 콤부 생
- 히말라야의 위대한 라마승 라우도 리마의 환생이라 여겨짐
- 1969년 인도 망명지에서 에세린포 체에게 수학
- 1970년 도미, 대승전통보존재단(FPMT) 설립, 현재 이사장.
- 저서: <의미있는 삶을 찾아서> <명상의 목적> <자유의 깨달음> <법륜의 힘> 등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존재의 고통의 소멸을 위한 것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탐욕 중도 무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나’ ‘너’ ‘그들’이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합니다. 만약 지적 사유만을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일단 가슴으로 무아를 보게 되면 삶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이 너와 나의 분리가 없을 때 지혜는 자질로 사랑과 친절 자비로 나타납니다. 행동에 자기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지혜의 상태로 부처님 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 속으로 들어 가지 않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커져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서원은 특정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분리가 있다는 환상이 사라지고, 지혜의 본질적 부분으로 존재하는 우주적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 다. 법, 즉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수행법은 이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용히 자각하여 마음을 살펴본다면, 모든 집착 사고관념과 개념이 사라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을 현재에 존재함,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 경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전통에 따라 수행한다 해도 같습니다. 이 마음의 고요는 공(空), 열반, 혹은 마하무드라 혹은 다른 용어로 지칭되지만 이 마음의 고요가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교정: 지남호(184호) 12면 서용스님 그룹인터뷰중 ‘돈오점수는 지혜로 해결...’을 ‘돈오점수는 지해(知解)로 해결...’로 바로잡습니다.

나와 경전



64 · 플

아욱왕경



박 경 훈 역경위원

10권으로 되어 있는 <아욱왕경>은 그 경명으로써 알 수 있듯이 아욱왕에 관한 기록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경과 내용이 같은 또 다른 한역은 전기(傳記)임을 드러내어 ‘아욱왕전’이라고 하였다. 경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굳이 경이라고 한 것은 한역하는 중국의 역경자가 아욱왕의 불교적 치적을 높이 산 때문이다.

<아욱왕경>은 아욱왕과 함께 아욱왕의 친족에 관해서 설하고 있고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전승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관해서도 설하고 있다.

내가 이 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욱왕에 관한 내용이다. 기원전 268년에서 232년까지 인도에 통일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린 아욱왕의 생애는 그로부터 2천1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

은 참으로 기괴한 운명이라고 할 것이다. 뒤에 그가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하늘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를 기뻐한다’는 뜻으로 ‘천애희경왕(天愛喜見王)’이라고 자칭한 것은 또 다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에 의하면 아욱왕이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8만4천의 탐을 세우고 불법에 의한 정치를 하고 경전을 결집하는 등 불교를 널리 퍼게 된 것은 그 살륙과 함께 아욱왕의 친족에 관한 설화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그가 직접 새긴 마에법칙(磨墨法勅)은 다른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아욱왕은 즉위하지 8년째 되는 해, 벵골만에 위치한 카링가왕국을 침략한 다. 이 전투는 아욱왕에 의한 인도 통일전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10만 이상의 사람이 죽고 15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참상을 목격한

BC 3세기 힘으로 다스린 인도 아욱왕 불교 귀의후 ‘다르마의 정치’로 전환

다. <아욱왕경>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현세적인 이상을 실천하는 제왕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우선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인류사를 집권을 위한 살륙의 역사라고 단정하는 사가(史家)가 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만 아니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살륙을 목격하고 있다. 집권을 위해서 무참한 살륙을 자행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욱왕이다. 그러한 그가 신성한 경전의 주인공이 된 거기에 권력에 사로잡힌 인간의 고뇌와 영광이 얽혀 있다. 그는 부왕이 죽은 뒤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권좌에 오른 다음에는 전 왕조에 봉사한 신하 5백명과 시녀 5백명을 직접 목을 잘라 죽음의 숙청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옥에 갇힌 인민을 무차별하게 죽였다. 그의 그러한 정치를 두고 그때 사람들이 “왕은 살생으로서 인민을 다스리고자 한다”하고 그를 ‘공포의 육왕’이라고 불렀다.

그의 범어 이름 ‘야쇼카’가 ‘무우(無憂)’ 즉 ‘근심이 없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민에게 공포의 왕이 된 것

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힘의 정치’로 부터 ‘다르마(法)의 정치’로 전환을 한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 다르마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보편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여 살생과 상해를 금하였다. 또 자비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윤리를 수립하였으며 자제(自制)와 유향(有和)과 보은과 종교적 신앙생활을 권장하였다.

특히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엄금하였다. 그는 불교를 옹호하고 원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이나고 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원조하였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빈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보시의 집’을 짓고 인간과 동물을 위한 병원을 지었다. 변방의 이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기원전 3세기의 절대군주가 이같이 ‘다르마의 정치’를 펼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그가 실존인물이고 결코 전설성왕일수 없음을 믿었다. 그의 영웅적, 군주상은 전해오는 인도의 전설에 따라서 전설성왕으로 이 상화되어 또다른 전설을 낳았다. 그 전설은 <아욱왕경>에 수용되고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도 수용되었다.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지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편안함)·넷째 유향덕(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지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명정수를 얻으려면 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지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山人)의 주수(主壽)는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인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앴으므로 불을 생(生)하기(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람 및 인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지신(지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임업장주(주(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強)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배방·솔미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파·송목파·송이버섯·백봉령·적봉령·백복산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술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낮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융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山人)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의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초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건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구입문의: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래원